아이히만이 된 소감

정 의 방
법제처 법제지원국장

공무원 생활 중 2016년, 2017년은 여러 면으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조금은 생소한 그리고 철자도 어려운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1]라는 이름과 어릴 때 영화에서 한 번 들어보았던 것 같아 어렴풋이 기억하는 아돌프 아이히만 (Adolf Eichmann)[2] 라는 이름이 거의 매일 대부분의 언론에서 언급되었다.

그냥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비판 더 나아가 비난하기 위하여 인용되었다.

정확하게 번역하기도 어려운 "the Banality of Evil"을 잘 나타내는 사람들, 인간의 조건인 "사유(思惟)"를 하지 않는 사람들 …

"아! 그러면 나는 나쁜 사람만 되도 다행이고, 결국은 인간 이하네"

전에 들었던 "영혼 없는 공무원"이 그나마 나은 것 같네. 공무원 오래 하다 보니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구나.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한 것 같지 않고, 멍 때리고만 산 것이 아닌데, 이런 말을 왜 이렇게 주야장천으로 들어야 할까??

생각 끝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

그런 비판의 의미는 공무원의 생각과 행동이 국민의 뜻과 원하는 바에서 멀어졌다는 의미인

1) 독일 태생의 유대인 철학사상가이며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1,2차 세계대전 등 세계사적 사건을 두루 겪으며 전체주의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다. 사회적 악과 폭력의 본질에 대해 깊이 연구하여《폭력의 세기》를 집필하였다.

2) 독일의 나치스 친위대 장교.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및 독일 점령하의 유럽 각지에 있는 유대인의 체포, 강제이주를 계획 · 지휘했다. 독일의 항복 후 아르헨티나로 도망쳤다 이스라엘로 압송되어 사형당했다.

듯 하다.

국민의 뜻에 반하고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세금 내는 국민의 바람을 무시하니 생각이 없고 배은망덕한 인간적으로 부족한 존재가 된 것이다.

서울에서 근무할 때보다 국민을 직접 대면하는 기회가 적고 동감하는 바가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그저 서류나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지 말고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보았다.

주말에 서울에서 국민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집회가 열리는 곳으로 가 보았다.
과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목소리를 글로 보고 육성으로 들으며 알게 되었다.
국민의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제도뿐 아니라 관행과 인식까지 많은 것들을 망라한 목소리를 들었다.
거기에 더해 국민의 모습을 보고 새로움을 느꼈다.
국민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질서정연하고 품격이 높고 고상하다.

그리고, 또 하나 집회, 시위라는 제도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내가 젊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집회, 시위의 연관어는 주동세력, 배후세력, 불법, 폭력, 쇠파이프, 중구난방, 고함, 연행 …

이번에는 전혀 아니었다.
사회자, 안내인, 예의, 배려, 질서, 한목소리, 경청, 청소, 귀가 …

초등학생도 자신의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발표하고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동체 의식으로 동감하고 여성용 화장실이 부족하여 불편한 여성 참가자를 위하여 남성용 화장실을 양보하는 배려 등 사람들의 모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모았다.
누군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집회나 시위는 없어야 좋은 사회인데 애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그런 것을 왜 보여줘?

그런가? 아니다.

집회와 시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니까 어린 사람들부터 미리 미리 집회와 시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다른 의미로 또 하나 강렬하게 느낀 것은 집회 참가자들의 절실함 그리고 마음의 상처다.

비오는 날, 눈 오는 날, 추운 날 가리지 않고 목청 높여 외쳐야 하는 절실함…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나 하는 의문과 이에 따라 우리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이 떨어져 안게 되는 마음의 상처…

돌이켜 보면 공무원이라고 일하면서 이러한 목소리에는 귀를 덜 열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느낀다.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더 나아가 사회발전에 긴요한 요구를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고 폄훼하면서 더구나 방법이 틀렸다고 무시한 것이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국민이 절실함을 안정되고 편안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을 막고

마음의 상처를 받도록 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한 것 같다.

국민은 다 알고 있는 사회의 모순과 발전 방안에 우리가 책상에서 귀 막고 눈 가리고 외면했고,

더 나아가 국민이 알고 있는 것을 전달받아도 이해하고 동감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무지의 바다를 떠다녔다는 생각이 든다.

사방팔방에서 욕을 먹고 사악한 사람, 생각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방향은 명확하다.

내가 아이히만이 맞다.

나는 아이히만이 아니라고 이런 저런 변명을 하면서 부정할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이 그런 비난을 받게 되었는가를 반성하고 개과천성의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

그러려면 국민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바라보고 귀 기울이도 마음을 열어야 한다.

특히, 관공서를 무시로 출입하고 밝은 얼굴로 웃고 편안하게 앉아서 대화하는 국민의 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잘 정리되어 전달된 국민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관공서 출입을 서로 껄끄러워 하고,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식에서 어쩔 수 없이 벗어나 거리에

서 비바람 맞으며 서서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많은 수보다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는 보청기를 끼고 듣는 자세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적은 수의 사람이 거리에 나설 때는 이 사회의 소수의 일이라 외로움과 소외감을 더욱 많이 느끼고 자신들이 겪는 일은 공동체가 도와주어야 해결할 수 있는데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절실함이 배가될 것이며 내가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열배 백배 더 클테니 이런 분들의 목소리는 공적 책임을 지는 공무원은 결코 외면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원래 나같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좋은 말만 들어서는 배우는 것이 적은 듯하다.

30년 가까이 해온 공무원 생활에 대하여 나름 자존심 상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듣고 되돌아보니 배우는 것이 많다.

특히, 비판과 비난에 대하여 필요한 자세는 확실히 배웠다.

변명하지 말고 반성하고, 부정하지 말고 개선해야 한다는 배움.